

정읍시, 내장산 관광산업 활성화 나섰다

단풍철 관광객 방문 대비 '상인학교' 운영 서비스 향상 불법행위·바가지요금 근절

정읍시가 내장산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상인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정읍시에 따르면 상인학교는 단풍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강했다.

'내장산! 대한민국의 가을을 대표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내장산 변영회 상인 37명이 참여해 오는 30일까지 자생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이 1일 2시간씩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내장산 내 불법행위,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의 근절과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인학교에서는 타 관광지 벤치마킹과 함께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자급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가맹점



지난 17일 단풍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인학교가 정읍시 주관으로 개강했다.

모집 캠페인과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정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제

출하면 된다.

시는 상품권을 지역에서만 유통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50억원을 발행하고 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산의 관광산업 명

성이 침체되어 가는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자세를 통해 정읍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가을 대표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제공)

순창군, 일본식 용어·외래어 우리말로 순화

공문서·행정용어 550건 선정...전직원 대상 홍보·교육

순창군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일본식 용어와 외래어 등 550건을 선정,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문서 작성 기준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일반화되

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문서나 행정용어에는 여전히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일본식 용어, 혹은

너무 어려운 한자어들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최근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 모두 550건의 용어를 선정해 공직자들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발표했다.

이 용어들은 그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일본식 한자어인 고수부지(高水敷地)는 둔치로, 고지(告知)는 알림으로, 노임

(勞賃)은 품삯으로 순화해 사용하게 된다.

또 리더십, 리플릿, 세미나 등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는 지도력, 광고지·홍보지, 발표회·연구회와 같은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할 방침이다.

강성인 순창군 행정과장은 "올바른 공공용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j@

시민 1004명이 연주하는 '1004 음악회'

군산시립예술단, 28일 개최...동요메들리 등 연주

군산시립예술단이 시민 1004명이 연주자로 참여하는 '1004의 음악회'를 28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립예술단의 주관으로 모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아주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군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이번 음악회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공연함으로써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다.

음악회에서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로 자라투스트라 팡파레, 만남, 위풍당당 행진곡, 동요메들리, 희망가요 메들리,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등을 연주한다. 또 미스트롯 정미애가 수은동, 장녹수, 아름다운 강산 등의 곡으로 무대에 서는 등 웅장하고 박찬 감동의 향연으로 관객과 함께하게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10억 등 13억원 투입 5만t 규모 용수 공급

고창군이 대산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산면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해 매년 침수와 가뭄피해가 반복되는 대산면 율촌리(금구지구) 일원 농경지 60ha에 용수공급을 위해 5만t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올 연말 착

공해 내년 말께 완료할 예정이다.

저류지가 조성되면 상습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조절 등 영농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생명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모든 농민들이 편리하고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지역특색 담긴 관광브랜드 본격 개발

500만 관광도시 조성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정체성 확립

익산시가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브랜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브랜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익산시 관광브랜드 개발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브랜드 슬로건 등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소개한다.

보고회에서는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익산의 역사, 문화, 지역특성, 대외적 이미지 등 관광브랜드 개발 사전 자료 조사,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관광브랜드는 언론매체, 홈페이지, 리플릿 등 통합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캐릭터 및 브랜드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 관광안내소 등의 브랜드 상징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익산시 관광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익산만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대기오염 주범 노후 경유차 줄인다

하반기 800대 조기폐차...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남원시가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줄이기에 나선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1000대에 이어 하반기 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의 10%가 추가된다.

한편 남원시에는 노후 경유차 6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는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1대1 홍보를 추진



한다.

신청은 10월 4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시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고자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4번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동부 센트레빌 상가 사정상 급매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6억5000만원

마지막, 300평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